

전주권광역소각장, 입지후보지 순위 공개

입지선정위원회 타당성조사결과 결정... 조사과정·결과 개요 20일간 공고

전주시는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진행한 후보지에 대한 타당성조사결과(평가결과)에 따라 1후보지(전주시 덕진구 우이2동) 81.8점과 2후보지(완주군 이서면) 84.3점, 3후보지(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현 소각장) 90.0점으로 결정됐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입지후보지에 대한 평가는 100점 만점 중 정량적평가 90점(용역수행기관), 정성적평가 10점(입지선정위원회)으로 입지선정위원회 의결에 따라 진행했다.

전주시는 관련법에 따라 입지선정위원회에서 통보한 조사과정 및 결과의 개요를 7일부터 20일간 공고할 예정이

며, 지역주민 등이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인 자원순환과에 비치했다.

시는 입지선정위원회에서 통보한 조사과정 및 결과를 토대로 전북지방환경청과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진행한 후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최종 입지를 선정하고 이후 기본계획 수립과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중앙투자심사, 환경·재해영향평가 등의 행정 절차를 거쳐 공사에 착수한다.

실질 예정인 친환경 광역소각장은 환경부 지침에서 제시한 최적화 권역인 전주시와 김제시, 완주군, 임실군 4개 시군의 생활폐기물 등을 처리하는

광역화 소각장이며, 규모는 1일 폐기물처리량 560톤이다.

시가 이처럼 친환경 광역소각장을 신규 건립하기로 한 것은 상립동행 전주권 광역소각자원센터의 운영기한(2026년 9월) 만료를 앞두고 기술 진척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 3월과 5월 2차례 입지 공고를 통해 입지후보지 3개소를 접수 받았다. 관련법에 의거해 입지 후보지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대표와 전문가, 시군의원, 시군공무원이 포함된 21명의 '전주권 광역소각시설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입지선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제1차 입지선정위원회 결과, 입지후보지에 대한 타당성조사 용역을 추진했고, 제2차 입지선정위원회 개최 후 후보지 평가항목, 배정 등 평가기준을 확정했다. 용역수행기관의 문헌, 현장조사 등을 통해 지난 4일 입지선정위원회에서 후보지에 대한 타당성조사과정 및 결과를 의결하고 이를 통보받았다.

최현창 전주시 자원순환본부장은 "친환경 소각장 신규 건립을 위한 입지 선정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면서 "남아있는 절차를 거쳐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최종 입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옥기기자



“마약, 절대 시작하지 마세요”

유희철 전북대병원장, 마약 근절 캠페인 동참

전북대학교병원은 유희철 병원장이 마약 범죄 예방을 위해 '노 엑시트(NO EXIT)' 마약 근절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NO EXIT' 캠페인이란 전 국민에게 마약에 대한 심각성을 일깨우고 마약 중독을 방지하기 위해 경찰청에서 관계 부처와 공동으로 시작한 범국민적 예방 캠페인이다. 캠페인 참여는 '출구 없는 미로 NO EXIT 마약, 절대 시작하지 마세요' 문구와 함께 사진 촬영 후 언론 보도 혹은 SNS에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다음 참여 주

자를 지목하는 릴레이 캠페인이다. 유희철 병원장은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 이선홍 회장의 지목을 받아 캠페인에 동참했으며 다음 수병원장을 지목했다.

유희철 병원장은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마약 범죄에 대해 모두가 경각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전북대병원은 공공의료기관으로서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마약 범죄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 문제에 책임감을 가지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전주만의 지역먹거리 경쟁력 입증

시, 지역먹거리 지수 시상식서 우수상 수상... 3년 연속 지수평가서 A등급 달성

전주시는 지난 7일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열린 '2023 지역먹거리 지수 시상식'에서 공공급식 공급실적 등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우수상(공사 사장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주관한 지역먹거리 지수 평가는 전국 159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역 먹거리 공적추진 △먹거리 거버넌스 △중소농가 조직화 △친환경 농업 확산 △도농상생 협력 강화 △지역기공품 생산 활성화 등 14개 지표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시는 1차 서면 심사와 2차 현장 심사를 거쳐 전국 13개 우수지자체에 주어지는 A등급을 달성했고, 우수상을 받



전주시는 지난 7일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열린 '2023 지역먹거리 지수 시상식'에서 공공급식 공급실적 등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우수상(공사 사장상)을 수상했다.

는 영예를 안게 됐다. 시는 올해까지 3년 연속 지역먹거리

/김옥기기자

지수평가에서 A등급을 달성함으로써 전주만의 지역먹거리 경쟁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특히, 지역먹거리계획 공적추진체계, 학교·공공급식 공급실적, 도농상생 협력 등에서 좋은 점수를 얻어 전주시의 지역 농산물의 선순환체계구축 노력을 인정받는 성과를 거뒀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 2015년 안전하고 건강한 농산물을 지역에서 '생산·가공·유통·소비·재활용' 되는 순환체계를 구축하는 전주푸드플랜을 수립하고 공공형 실험조작인 재단법인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를 설립했다.

조현숙 농식품산업과장은 "이번 수상은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소비하는 선순환체계 구축을 위해 힘써온 결과이다"며 "앞으로도 친환경농업 실천, 지역농산물 공급 확대 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옥기기자

전주시·여수시, 3개국 해외 마이스 관계자 초청 팸투어 추진

전주시가 전남 여수시와 손잡고 해외 마이스관광객 유치에 지역 알리기에 나섰다.

전주시는 지난 7일부터 오는 11일까지 4박 5일간 전남 여수시와 공동으로 싱가포르와 대만, 말레이시아 3개국 MICE전문 여행업체 임원진 13여명을 초청하는 마이스 팸투어를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전주를 찾은 초청 대상자들은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사흘간 전주한옥마을과 국립무형유산원, 전북대학교 컨벤션센터 등 전주시 마이스 인프라를 둘러보고 여수로 이동했다.

시는 방문단이 전주에 머무는 동안 대표 관광지인 전주한옥마을과 전통



전주시는 전남 여수시와 공동으로 싱가포르와 대만, 말레이시아 3개국 MICE전문 여행업체 임원진 13여명을 초청하는 마이스 팸투어를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다.

시는 방문단이 전주에 머무는 동안 대표 관광지인 전주한옥마을과 전통

/김옥기기자

문화를 다양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 각국의 MICE 행사를 위한 코스 개발과 MICE행사 유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도했다.

이와 관련 시는 행사를 개최하는 주최·주관 단체에 대해 △행사개최를 위한 장비·행사장 임차료 △공식 오찬·만찬 △행사 진행을 위한 인쇄물 제작 등의 항목으로 최대 2000만원의 행사개최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다.

단, △전주시 예산을 별도로 지원받는 경우 △정치·종교·스포츠·친목·특강·순수관광을 목적으로 개최하는 경우 △그 밖의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이 금지된 회의 및 행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옥기기자



전주시 가정어린이집연합회는 지난 7일 2023년 송년회를 개최했다.

전주시 가정어린이집연합회 송년회 가져

전주시 가정어린이집연합회(회장 박정순)는 지난 7일 우이동 소재 음식점에서 2023년 송년회를 개최했다.

이날 송년회에서는 80여 명의 가정어린이집 원장들이 참석해 장기자랑과 화합의 시간을 통해 2023년을 마무리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우범기 전주시장이 참석해 출산을 감수 등 어려움 속에서도 보육 발전에 기여한 회원 16명에게 전주시장 표창을 수여했다.

박정순 전주시 가정어린이집연합회

회장은 "남다른 사명감으로 최선을 다하는 회원들의 노고에 감사하며, 송년회를 통해 그간 쌓인 피로를 해소하고 더욱더 화합하고 발전하는 가정어린이집 연합회가 되겠다"고 말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아이들을 사랑으로 지도해 주신 보육교직원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며 "보육교직원이 행복하고 더불어 아이들이 행복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김옥기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렀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기관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권익자였다.

전주매일 캠페인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난한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체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김영터의 중추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출: 전주시 제공)

선화당

관풍각

내아